

해외신간

알기 쉬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이성적이며, 상식을 넘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재가 법사로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스티븐 하젠은 <알기 쉬운 불교(Buddhism Plain and Simple)>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의 자신과 현재를 아는 것임을 강조한다. 불교의 근본교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수필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Paperback 출판. ISBN: 0767903323

내면의 불성을 깨달자

미국에서 티벳 불교를 알리고 있는 수라다스 스님이 최근 펴낸 <내면의 불성을 깨달자(Awakening the Buddha Within: Tibetan Wisdom for the Western World)>는 티벳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찾아내고, 불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사회의 문제의 해답으로 삼을 수 있는 티벳 불교의 은유적 깨달음을 현대적 어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Paperback 출판. ISBN: 0767901576

해방의 종교

종교가 역사사회의 중심에서 어떻게 인간의 현실에 관계하고 '해방'에 이바지하였는가. <해방의 종교>에서 저자 료오키 마사하루(養木政晴)는 이 문제에 대해 확언하고, '해방'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는지를 검증했다. 緣風出版. 9.9천원

피안을 향한 지혜의 길

해공스님 지음

일상서 실천해야 할 불교가르침

심오한 교리나 사상은 삶의 궁극을 제시한다. 반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가르침이 절실할 때도 많다. 해공스님(영천 총효사)이 펴낸 <피안을 향한 지혜의 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생활법문집이다. 자기 자신의 주체성 확립, 부부관계·자녀교육 등 가정문제, 공동체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편,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비추고 있다. 법문집이기는 하지만 에세이처럼 작은 주제 아래 짧은 글들로 엮여 있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인생의 물길을 가능하고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자 강을 건너는 돛대이며, 지뢰를 감지하는 탐침"이라고 해공스님은 말한다. <불교시대사, 9천5백원>

방생공덕 감로요우

도취스님 엮음

일화로 살핀 방생의 공덕과 의미

부처님께서는 "뜻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공덕"이라고 설하셨다. 방생은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는 생명존중사상이다. 그리고 그 공덕은 살생을 하지 않음은 물론 뜻 생명을 살려주고 나아가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방생공덕 감로요우>는 티벳의 적맥관속 법왕이 방생에 대해 설법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그 의미와 공덕을 자세히 소개한 '방생 입문서'다. 사람을 살리고 살생하지 않는 공덕, 살생 참회 등에 대한 방생의 의미를 갖가지 일화를 통해 설명해 놓았다. 삼세의 인과와 티벳의 방생의식도 덧붙여 놓았다. 서문에는 '방생'을 통해 영원한 안락을 얻고 다같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라는 적맥관속 법왕의 법문이 실려있다. 저자는 연등사에서 수행정진 중인 도취스님. <부다가야, 4천원>

'윤회의 수미산 무너지다'

고은 불교소설 '수미산'

히말리아를 본뜬 허구 속의 산이요, 불교의 우주관을 이루는 거대한 산 '수미산'. 그런 수미산이 무너(?)졌다. 한 시인이 그렇게 했다. 다 무너지고 다 놓아버린 적멸의 상태. 시인은 수미산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랐다. 한국문학의 큰 산맥 시인 고은. 그에게 수미산은 더 이상 '상상의 산'이 아니다. 존재의 궁극은 수미산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인생을 시처럼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그에게서 시는 곧 수미산이라.

인 무욕도로 데리고 온 인담은 남작(南覺) 무전(無田) 등 8명의 도반을 받아들이고 무욕도 결사를 감행한다. 그렇게 이들은 무욕도에서 치열한 수행을 하다가 인담과 우너를 남기고 각자 업보와 서원에 따라 다른 세상으로 윤회한다. 이후 무욕도는 요형, 명오 등 세상의 혼탁을 넘어 진리를 갈구하던 새로운 식구들을 맞아들인다. 그러나 이들 역시 모두 업보와 발원에 따라 윤회하고, 인담과 우너도 역시 윤회의 길을 걷는다.



◇ 지난해 5월 수미산(히말리아산)에 오른 고은 시인. 소설 '수미산'에서는 수미산을 무너뜨렸다.

육도윤회 넘나들며 불교의 우주관을 시처럼 쓴 소설의 진수 현대불교신문 3년간 연재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무욕도는 <신곡>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단순한 구도 순례기라면, <수미산>은 천상과 지옥뿐만 아니라 축생, 아귀, 다양한 인간의 길 등을 중황으로 오가면서 존재의 의미를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미산>은 새로운 차원의 구도소설로 평가할만 하다. 소설 <수미산>은 곧 제목으로 현대불교신문 제2호(94.10.26)부터 151호(97.11.19)까지 149회에 걸쳐 3년 동안 연재되면서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야기는 조선후기인 속종조 방랑승 인담이 예성강 전포너루에서 실성한 남자 우너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우너를 서해안의 자신의 수행처

끝없는 수행과정'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저자는 소설 말미에서 "해탈이 곧 윤회의 반대인가"라고 묻고는 "해탈이야말로 새로운 윤회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답한다.

그렇다면 고은 시인은 '이제 이 세계에 작은 짐승이나 아메바로 태어나도 좋은 것이다' (시집 <속삭임> 중 '내생') 미물조차도 삶 속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옥 속으로도 기꺼이 들어간다. 이렇듯 윤회의 과정을 무한한 수행의 과정이요, 깨달음이 통타르라는 삶으로 기꺼이 껴안은 것이다. 수미산이 무너지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별명은 그 무엇보다 장엄하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역경의 세월이 지나 그 세월마저 무너져내릴 때까지 윤회할 우리 모두가 수미산의 '자식들'임을 말한다. '장엄한 적멸의 대대원' 한마디로 <수미산>은 그런 소설이다. 값 각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신화속에 감춰진 원효스님의 실상

남동신씨 '원효'

남동신씨(한국외국어대 강사)가 펴낸 <원효>(새누리판)는 원효스님의 대중교화업적과 사상체계, 원효스님과 신라 중대 왕실의 관계 등 원효스님의 다양한 모습을 기술한 평전이다. 전기에 입각하여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원효스님을 조명하고, '스님'보다는 '거사'의 모습으로 바라본 시각이 독특하다. 화경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효스님 시대에 나타난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화쟁방식을 밝히고, 다시 그것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거사로 일생을 마쳤듯이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재가보살로서의 삶의 조명은 원효스님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전체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원효스님에 대한 허상과 실상, 시대배경, 스님의 삶을 기록한 3대 전기(傳記)를, 2부에서는 생애를 소개해 놓았다. 3부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원효스님의 철학을 다뤘으며, 4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3대 전기와 13종 저술의 서문을 번역하고 아울러 연표와 참고문헌을 수록해 놓았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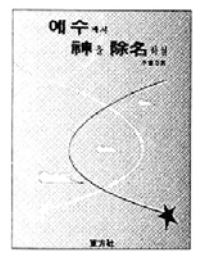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불교와 기독교 논리적 비교분석

이동방씨 '예수께서 신을...' 제바달다와 유다, 수바드라와 한 여인, 아시타와 시므온. 불교와 그리스도교 모두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공통점. 제바달다와 유다는 부처님과 예수를 배반한 제자요, 수바드라와 한 여인은 두 분을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다. 아시타와 시므온은 두 분의 위인됨을 예언했던 사람. 이동방씨(대한불교대학 학장)가 펴낸 <예수께서 신을 제명하심>(동방사)은 부처



님과 예수,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세계화 비교분석해 놓은 책이다. 비교 항목을 명쾌히 나누고 경전과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그에 맞는 논리를 전개해 놓았다. 내용은 부처와 예수의 일대기, 불경과 신약 성경, 부처와 예수가 설한 진리말씀, 계율과 율법 등 모두 6권의 큰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연기법과 인과응보, 윤회 등 불교의 주요 교리와 비교할만한 성경의 구절을 언급하는 등 저자의 비교연구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도 많다. 값 9천5백원. 한명우 기자

박찬호, 20승할까? 못할까?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년,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Advertisement for 'Boksan-sim Parahagi' (벽산스님 따라하기) by Boksan-sim. Includes text about following the master's path and a list of 6 steps to success.